

부모 및 또래 애착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상훈 · 이희영[†]
(학장초등학교 · [†]부경대학교)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of 5th and 6th Graders

Sang-Hoon LEE · Hee-Yeong LEE[†]
(Hakjang Elementary School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of 5th and 6th grader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does attachment to parents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of 5th and 6th graders? Second, does attachment to peers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of 5th and 6th graders? Third, what are relative influenc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of 5th and 6th graders? Three hundred eighty nine 5th and 6th graders in Busa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complet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Scal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wo-way ANOVA and η^2 .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at parent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would significantly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of 5th and 6th graders; Relative influence of Parent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would differ depending upon sub-factors of school adjustment.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comment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Elementary school children

I. 서론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시작되는 학령기가 되면 아동의 활동 영역은 가정에서 학교로 점차 확대된다. 학교는 아동의 지적역량을 발달시키고 유능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며, 부모 이외의 다른 성인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

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제 2의 성격 형성의 장이다(김혜래·최승희, 2009). 특히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제도 범위에 포함되고, 아동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의 사회화 기능이 상당 부분 학교로 이양된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강문희, 1998). 이처럼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큰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495. hylee@pknu.ac.kr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으로 학교에서의 적응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삶의 요소라 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 분야의 초기 연구는 학교생활적응을 주로 인지적·학업적인 면에 초점을 둔 단일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나, 최근에는 학교생활적응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여 학교생활의 다양한 하위 요인을 포함하는 복합 개념으로 보고 있다(조은정, 2012).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나, 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의 4가지 요인이 중요한 영역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동이 교사 및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수업에 잘 참여하며, 학교규범을 잘 준수하여 학교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을 학교생활적응으로 본다.

초등학교 시기의 적응 수준과 질은 이후의 적응을 예측해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가의 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정운·이경아, 2004; 이희영·현문학, 2005). 뿐만 아니라 Ladd, Kochenderfer와 Coleman (1996)에 의하면 학교적응은 아동의 이후 교육적 진보의 중요한 전조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초등학교 아동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성장, 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안영

복, 1984).

그러나 모든 아동이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의 부적응 행동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불안, 절망, 소외감과 함께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비행행위를 일삼게 되며, 공격적·과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자아개념 형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학교는 물론 자신에게도 유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Jeong, Kim, & Yoon, 1998).

아동의 학교적응문제는 아동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지대한 관심사이며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으로 교육기회를 낭비하기보다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잘 적응된 생활을 영위하기를 기대한다(김귀숙·정영옥·이나혜, 2003). 그러므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학교생활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지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부모 갈등,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한 많은 변인들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지어 연구되어져 왔으나(박성연·강지훈, 2005; 박정희·박정미, 2010; 이윤주, 2004; 이인학·최성열, 2009; 이재성·문영경·최형임, 2012; 장영애·박정희, 2008; 최진현·유미숙, 2012; 하명선·이순복, 2009; 홍연란, 2000),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변인 중의 하나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관심을 두는 이유는 아동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가 아동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 기초를 형성해 주는데, 애착 이론(Bowlby, 1982)은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관점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애착이란 어떤 특정인과 접촉하고 가까이 있으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Bowlby, 1982). Bowlby(1979, 1982, 1988)에 의해 기본 원리가 정립된 애착 이론은 인간이 특정 인물과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성향을 개념화하고 인간 발달에 있어 애착 관계의 역할을 설명한다.

애착 이론(Bowlby, 1979)은 아동이 보호자와 맺는 애착 관계의 질에는 개인차가 있고 이러한 애착 관계의 질이 아동의 이후 발달 및 적응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아동의 애착 행동은 보호자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이 때 아동의 애착 행동에 대해 보호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동과 보호자간의 정서적 유대의 질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결정한다. 즉, 만약 애착 인물이 아동의 애착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면 그 아동은 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반면, 만약 애착 인물이 아동의 애착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일관성있게 반응하지 않으면 불안정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애착 관계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이후 새로운 삶의 경험의 지각과 해석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owlby, 1988).

애착 이론에 기초해서 볼 때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보호자(대개 부모)와의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에 근거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백동영, 2003; 왕혜옥·김광웅, 2004; 유복귀희, 2003; 이숙희, 2007; 임수진·안진홍, 2012; 정세화, 2003; 허재경·김유숙, 2005; Granot & Mayseless, 2001)이 부모와의 애착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연구 결과는 대체로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애착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애착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부모에 대한 애착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다른 애착 대상은 등한시하였다. 물론 부모는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애착 대상이다. 하지만 아동기 애착은 영유아기 애착과는 달리 애착 대상이 일차 양육자인 부모에게만 머물지 않고 또래에까지 확대된다(김분·최연실, 2012). 즉 또래는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애착 대상이다. 아동기의 또래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학동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또래 관계에 관한 한 조사(김택호·김인규, 1999)에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61.9%가 또래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연구 결과는 학동기 아동에 있어 또래의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몇몇 연구자들(김귀숙·정영옥·이나혜, 2003; 최문정, 2006)이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들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둘째, 애착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여성의 심리적 발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예, Gilligan, 1982; Josselson, 1988)은 남성과 여성은 발달 경로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남성은 자율, 독립, 분리의 방향으로 심리적 발달이 이루어지나 여성은 애착, 관계, 친교, 유대의 방향으로 심리적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애착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많은 학자들이 대학생 대상 연구로 하여 애착과 대학생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 성차를 연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왕혜옥과 김광웅(2004)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연구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할 때 성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만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동기 아동의 발달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는 것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애착의 역할을 검토한 연구는 대부분 부모와의 애착 관계만을 다루었고, 부모와 또래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 또한 최문정(2006)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부모애착이나 또래애착을 개별적으로 살펴본 것 뿐 이들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토하지 않았다. 최문정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 및 또래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석에서 아동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진술한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부모 애착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또래 애착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부모 및 또래 애착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M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8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모든 문항에 답하지 않은 26명의 자료는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대상은 363명이었다. 363명 중 5학년이 167명, 6학년이 196명이었고, 남학생이 177명, 여학생이 186명이었다.

2. 측정도구

가.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아동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판을 옥정(1998)이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의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 대한 7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 척도는 애착의 세 가지 차원(상호신뢰의 정도, 의사소통의 질, 분노와 소외의 정도)을 재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신뢰 차원(10문항)은 아동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의사소통 차원(9문항)은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분노와 소외 차원(6문항)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로 향한 분노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에 대한 애착 각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관계가 더 안전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얻은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는 부애착 .92, 모애착 .90, 또래애착 .92였다.

나. 학교생활적응 척도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 규칙준수에 대한 적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의 5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이 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을 제외한 4개 하위 척도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얻은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전체 .87,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83,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 .65,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 .70, 규칙준수에 대한 적응 .78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관계 변인인 부모 및 또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영역별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애착과 또래

애착 점수의 상·하위 50%를 절단하여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뒤 남녀별로 구분하여 2x2에 의한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 하위 영역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η^2 의 값을 구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예비분석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 분석으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영역별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고 부모·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 하위 영역간의 적률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2>의 상관계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볼 때 부모애착 수준과 학교생활적응은 하위영역에 따라 r=.39(담임교사적응)~.48(학습활동적응)의 범위로 나타나, 약 15.2%~23.0%정도의 공유변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애착 수준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는 r=.28(학습활동적응)~.46(교우관계적응)의 범위를 지니므로써 7.8%~21.2%의 공유변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 또한 높아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1>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하위 영역별 기술통계량

| 성별 | | 애착 | | 학생생활적응 하위 영역 | | | |
|--------------|------|-------|-------|--------------|-------|-------|-------|
| | | 부모애착 | 또래애착 | 담임교사 | 교우관계 | 학습활동 | 규칙준수 |
| 남 (N=177) | 평균 | 82.64 | 79.45 | 17.72 | 17.27 | 16.63 | 16.86 |
| | 표준편차 | 13.09 | 15.45 | 4.42 | 3.21 | 3.45 | 3.87 |
| 여 (N=186) | 평균 | 82.53 | 85.35 | 18.67 | 17.30 | 16.42 | 17.87 |
| | 표준편차 | 12.27 | 14.00 | 3.76 | 3.22 | 3.15 | 3.41 |
| 전체 | 평균 | 82.58 | 82.47 | 18.21 | 17.28 | 16.52 | 17.37 |
| | 표준편차 | 12.66 | 15.00 | 4.12 | 3.21 | 3.29 | 3.67 |

<표 2>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계수

| | | 학생생활적응 하위 영역 | | | |
|-------|----|--------------|--------|--------|--------|
| | | 담임교사 | 교우관계 | 학습활동 | 규칙준수 |
| 부모 애착 | 남 | .339** | .502** | .447** | .431** |
| | 여 | .454** | .383** | .511** | .429** |
| | 전체 | .388** | .443** | .477** | .425** |
| 또래 애착 | 남 | .276** | .530** | .406** | .290** |
| | 여 | .286** | .397** | .175** | .186** |
| | 전체 | .294** | .456** | .286** | .262** |

*p<.05 **p<.01

2. 부모 및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문제 1과 2에 따라 부모 및 또래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 및 또래애착 점수에 따라 상위·하위집단을 구분하여 2x2에 의한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에 나타난 결과를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에 따라 차례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에 대해 살펴보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는 또래애착이,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모두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을 살펴보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남·여 학생 모두의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에 대해 살펴보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학생의 경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모두가,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애착만이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규칙준수에 대한 적응에 대해 살펴보면,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여 학생 모두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규칙준수에 대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고, 또래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부모 및 또래애착 수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점수에 대한 변량분석

| 종속변인 | 구분 | 변량원 | 총자승합 | 자유도 | 평균자승 | F |
|-------------|----|-------|---------|-----|--------|----------|
|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 남 | 부모애착 | 16.00 | 1 | 16.00 | .90 |
| | | 또래애착 | 243.32 | 1 | 243.32 | 13.63*** |
| | | 부모×또래 | 27.15 | 1 | 29.15 | 1.63 |
| | | 오차 | 3088.08 | 173 | 17.85 | |
| | | 합계 | | | | |
| | 여 | 부모애착 | 251.52 | 1 | 251.52 | 23.07*** |
| | | 또래애착 | 146.40 | 1 | 146.40 | 13.43*** |
| | | 부모×또래 | 41.69 | 1 | 41.69 | 3.82 |
| | | 오차 | 1984.51 | 182 | 10.90 | |
| | | 합계 | | | | |

| | | | | | | |
|----------------|---|-------|----------|-----|---------|-----------|
|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 | 남 | 부모애착 | 134.674 | 1 | 134.674 | 18.042*** |
| | | 또래애착 | 202.52 | 1 | 202.52 | 27.131*** |
| | | 부모x또래 | 27.999 | 1 | 27.999 | 3.751 |
| | | 오차 | 1291.342 | 173 | 7.464 | |
|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 | 여 | 부모애착 | 42.113 | 1 | 42.113 | 5.135* |
| | | 또래애착 | 278.428 | 1 | 278.428 | 33.951*** |
| | | 부모x또래 | 3.844 | 1 | 3.844 | .469 |
| | | 오차 | 1492.555 | 182 | 8.201 | |
| 규칙준수에 대한 적응 | 남 | 부모애착 | 187.636 | 1 | 187.636 | 19.531*** |
| | | 또래애착 | 101.752 | 1 | 101.752 | 10.591*** |
| | | 부모x또래 | 12.521 | 1 | 12.521 | 1.303 |
| | | 오차 | 1662.040 | 173 | 9.607 | |
|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 | 여 | 부모애착 | 245.966 | 1 | 245.966 | 29.350*** |
| | | 또래애착 | 4.562 | 1 | 4.562 | .544 |
| | | 부모x또래 | 2.068 | 1 | 2.068 | .247 |
| | | 오차 | 1525.256 | 182 | 8.381 | |
|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 | 남 | 부모애착 | 271.497 | 1 | 271.497 | 22.153*** |
| | | 또래애착 | 88.472 | 1 | 88.472 | 7.219** |
| | | 부모x또래 | .873 | 1 | .873 | .071 |
| | | 오차 | 2120.161 | 173 | 12.255 | |
| 규칙준수에 대한 적응 | 여 | 부모애착 | 214.755 | 1 | 214.755 | 22.592*** |
| | | 또래애착 | 54.932 | 1 | 54.932 | 5.779* |
| | | 부모x또래 | 31.273 | 1 | 31.273 | 3.290 |
| | | 오차 | 1730.077 | 182 | 9.506 | |

* p<.05 ** p<.01 *** p<.001

3. 부모 및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 결과에서 산출하였던 η^2 값을 비교하였다. 관련강도를 해석할 수 있는 에타자승(η^2) 값을 활용해 성별에 따라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의 하위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애착의 η^2 값은 0.5%이고 또래애착은 7.3%로 또래애착이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던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애착이 11.2%, 또래애착이 6.9%로 부모

애착의 영향력이 컸다. 둘째,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애착은 9.4%, 또래애착은 13.6%로 또래애착이 컸고, 여학생의 경우도 부모애착은 2.7%, 또래애착은 15.7%로 나타나 또래애착이 컸다. 셋째,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애착이 10.1%, 또래애착이 5.8%로 부모애착이 컸고, 여학생의 경우도 부모애착이 13.9%, 또래애착이 0.3%로 나타나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컸다. 마지막으로 규칙준수에 대한 적응은 남학생의 경우 부모애착이 11.4%, 또래애착이 4.0%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부모애착이 11.0%, 또래애착이 3.1%로 나타나 남·여 학생 모두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컸다.

<표 5>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n^2

| | | | 학생생활적응 하위 영역 | | | |
|-------|---|----------|--------------|------|------|------|
| | | | 담임교사 | 교우관계 | 학습활동 | 규칙준수 |
| 부모 애착 | 남 | η^2 | .005 | .094 | .101 | .114 |
| | | 유의성 | × | ○ | ○ | ○ |
| 또래 애착 | 남 | η^2 | .112 | .027 | .139 | .110 |
| | | 유의성 | ○ | ○ | ○ | ○ |
| 부모 애착 | 여 | η^2 | .073 | .136 | .058 | .040 |
| | | 유의성 | ○ | ○ | ○ | ○ |
| 또래 애착 | 여 | η^2 | .069 | .157 | .003 | .031 |
| | | 유의성 | ○ | ○ | × |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 둘째, 또래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 셋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과 하위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아래에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애착이론의 기본 가정에 따라 부모에 대한 애착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적응의 전 하위 영역에, 남학생의 경우는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을 제외한 전 하위 영역에서 부모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촉진시킨다는 Bowlby(1982)의 애착이론을 지지한다.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분야의 많은 선행 연구 결과(백동영, 2003; 왕혜옥·김광웅, 2004; 유복귀희, 2003; 이숙희, 2007; 임수진·안진홍, 2012; 허재경·김유숙, 2005; Granot & Mayseless, 2001)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기의 적응(학현영·강승희, 2011; 이희영·하경선, 2010)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적응에도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증진시키는 교육적 개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등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와 애착 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또래가 학령기 아동이 부모이외에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애착 대상이라는 가정 아래, 또래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적응의 전 하위 영역에, 여학생의 경우는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을 제외한 전 하위 영역에서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발견한 최문정(2006)과 김귀숙 등(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또래에 대한 애착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착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와 의 애착이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는 데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애착이 어머니 이외의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개념화 되면서 두 사람 이상의 대상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복합애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희영·한희정, 2011). 복합애착에 관한 연구는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교사나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 부모와 맺은 애착 관계 못지않은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보여 준다(손혜숙, 2000; 이상은·신건호, 2003).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 또래와 맺는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이라도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 특히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이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성별과 학교생활적응 하위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의 경우 담임교사 및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에서는 또래애착이 부모애착보다 영향력이 컸던 반면 학습활동과 규칙준수에 대한 적응에서는 또래애착보다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컸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교우관계에서만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컸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문정(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최문정의 연구에서는 교우관계에 대한 적응을 제외하고는 부모애착이 또래애착보다 학교생활적응에 더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모두 영향을

주나 상대적 영향력은 적응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돕고자 할 경우 그 학생이 어떤 적응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부적응 영역에 따른 차별적 조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심리적 발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Gilligan, 1982; Josselson, 1988)은 애착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즉, 부모 및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부모 및 또래애착의 영향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의 경우 부모애착은 여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남학생의 적응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또래애착은 남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여학생의 적응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 및 또래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에서도 발견되는데,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의 경우 남학생은 또래애착이 여학생은 부모애착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영향을 검토할 경우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여학생은 이들이 부모와 맺고 있는 애착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남학생의 경우는 또래와의 애착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학동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간과했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했으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나 또래와 맺은 애착의 정도만을 고려했을 뿐 애착 관계의 질을 고려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애착관계의 질을 고려한 애착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관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부모와 또래뿐만 아니라 교사 또한 중요한 애착 대상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 애착을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부모, 또래, 교사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는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문희(1998). 아동정신건강. 정민사
 김귀숙·정영옥·이나혜(2003). 아동의 애착과 자기 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6(2), 259~279.
 김분·최연실(2012). 초등학교 부모·교사·또래 애착 유형별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 대한가정학회지 50(1), 1~13.
 김택호·김인규(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실태 분석. In 구분용·김택호·김인규(편), 청소년의 또래 관계(pp. 23~78),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김혜래·최승희(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체제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0, 159~182.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교 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강지훈(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박정희·박정미(2010).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25~134.
 박은주(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 부모, 친구,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영·강승희(201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학교생활적응 행동,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구조, 수산해양교육연구 51, 43~55.
 백동영(2003). 부모-자녀 애착과 아동의 정서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혜숙(2000). 복합애착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성과 반사회성, 유아교육연구 20(3), 85~97.
 안영복(1984). 적응 및 부적응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혜옥·김광웅(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2), 77~88.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복귀희(2003). 아동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채영·김정섭·강명숙(2010). 세 가지 유형의 칭찬을 활용한 또래칭찬활동프로그램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47, 141~150.
 이경화·손원경(2005).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6(4), 157~171.
 이상은·신건호(2003).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3), 165~185.
 이숙희(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에 대한 애착

- 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상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2), 435~449.
- 이인학 · 최성열(2009).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 아동교육 18(4), 47~56.
- 이정운 · 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재성 · 문영경 · 최형임(2012).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233~246.
- 이희영 · 안희정(2011). 부모와의 복합애착유형에 따른 만 5세 유아의 또래유능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2(2), 89~113.
- 이희영 · 하경선(2010).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및 부모에의 애착이 중학생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48, 205~217.
- 이희영 · 현문학(2005). 신체활동 놀이가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17, 26~34.
- 임수진 · 안진홍(2012).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31-345.
- 장영애 · 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9~85.
- 정세화(2003). 애착안정성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학교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1), 35~50.
- 최문정(2006). 아동의 부, 모, 또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현 · 유미숙(2012). 아동의 놀이성과 친구관계 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2), 197~217.
- 하명선 · 이순복(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47~258.
- 허재경 · 김유숙(2005). 부모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83~495.
- 홍연란(200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요인, 대처방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및 학교적응, 아동간호학회지 6(3), 362~371.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owlby, J.(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 Attachment(2^우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not, D., & Mayseless, O.(2001). Attachment security and adjustment to school in middle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 530~541.
- Jeong, M. S., Kim, S. K., & Yoon, D. J.(1998). Rationality of action for the promotion of research on program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Future of Youth, 1, 93~119.
- Josselson, R.(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pp. 91-108), New York: Springer.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 논문접수일 : 2012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1월 28일
2차 - 2013년 01월 31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2월 04일